

이슈&진단

No. 332
2018. 08.01.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 작성 최석현 / 정책분석부 연구위원
(gree1200@gri.re.kr, 031-250-3164)
김정훈 /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재신/ 정책분석부 연구원

목 차

- 쟁점과 대안
- I. 청년고용 부진과 사회적 여파
- II.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
- III. 청년보장제 경기도 도입방안
- IV. 향후 정책 방향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

- 엘빈 토플러(2007) -

쟁점과 대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부진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기 요구되는 창의적 인적자본 축적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17년 청년 실업률이 10.5%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지만, 경기남부권역 안에서도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간의 청년 노동시장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통 산업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 즉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숙련자 수요 비중과 숙련자 공급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저숙련 균형 상태’로 나타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숙련 청년들이 서울 등,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직단계별 및 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형 청년보장제를 제안한다. 경기도는 청년보장제 안에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 단위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숙련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고용서비스기관을 허브로 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시 경험하는 다양한 구직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년 대상 소득지원을 포함한 교통 및 주거 등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 청년고용 부진과 사회적 여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

□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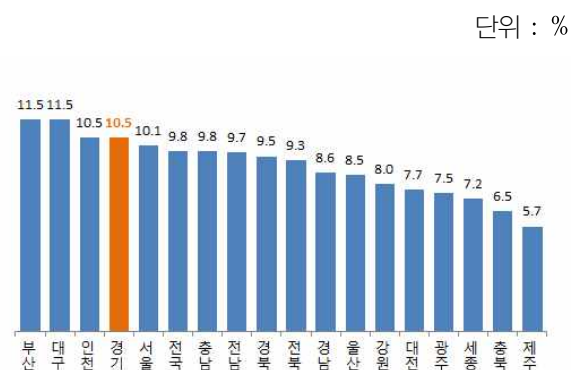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9.8%로 상승
 - 2008년~2017년 동안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인구가 987만 명에서 928만 명으로 감소
 - 같은 기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8년 414만 명에서 2017년 391만 명으로 약 23만 명(5.58%) 감소했으며, 청년실업자 수는 31만 8천 명에서 42만 6천 명으로 33.96%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오히려 악화
-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39.5%에서 2017년 42.1%로 상승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상승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하여 다른 시·도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
 -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2012년 6.9%에서 2017년 10.5%로 급격히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 청년실업률은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남

<전국 및 경기도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시도별 청년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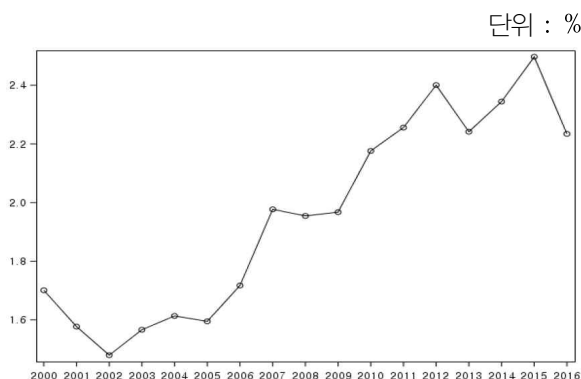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주요 경제·사회적 문제

□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저출산을 악화시키고 인적자본 축적을 악화시키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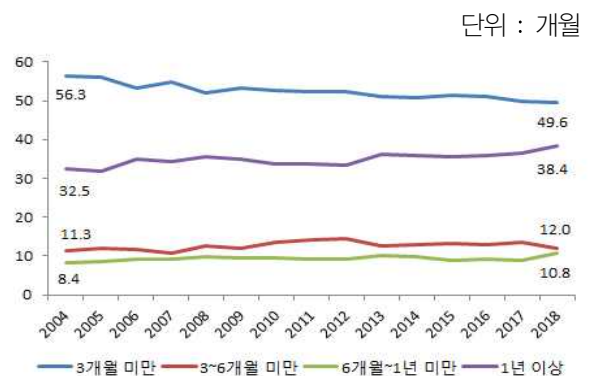
-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업자와 비정규직에서 결혼확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이상호·이상현, 2011)
 -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해 비혼이 늘어나고 평균 초혼연령도 상승(1994년 25.1세 → 2016년 30.1세)
 - 2016년 기준으로 실제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명으로 나타나 비혼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철희, 2017)
-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와 취업스펙 쌓기 중심의 학업은 창의적 인적자본 형성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악영향
 - 청년층(15~29세)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중은 2004년 56.3%에서 2018년 49.6%로 하락한 반면, 1년 이상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2.5%에서 38.4%로 상승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자료를 분석한 KDI(2018)에 따르면, 대졸 졸업 연령인 25~34세의 평균역량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상위권이지만, 상위 1%의 역량은 최하위국에 속하고 하위 1%의 역량은 최고 수준

<한국의 有배우 합계출산율>



자료 : 이철희(2017). “한국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대응”, 서울인구포럼.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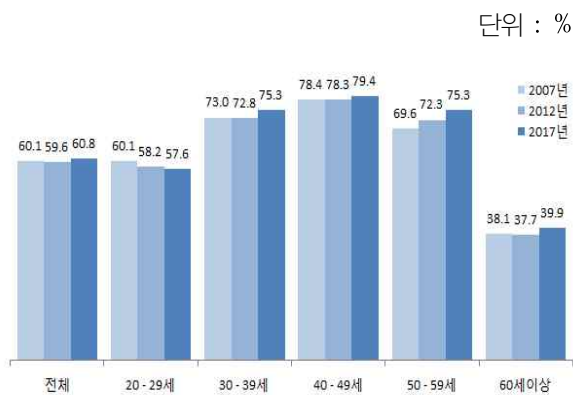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향조사.

□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세대 간 갈등과 정부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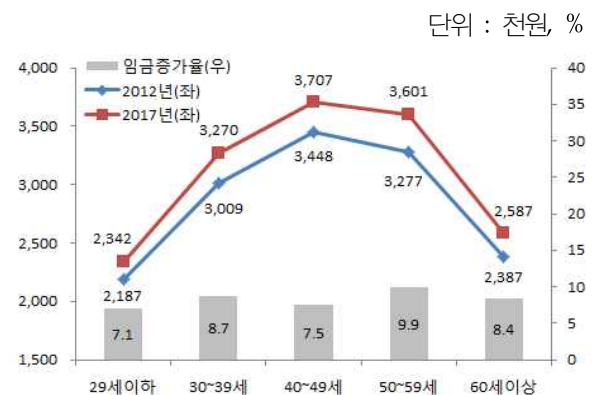
- 청년층과 다른 연령대 간 고용률과 임금격차 확대는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청년층의 고용부진과 불충분한 임금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노후근로 가중
 - 20~29세 고용률은 2007년 60.1%에서 2017년 57.6%로 하락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모두 상승
 - 2017년 기준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정규직의 평균 실질 월임금액(2015년 물가 기준)은 2,342천 원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2,587천 원보다도 낮음
 - 2012~2017년 동안 청년층의 실질임금 상승률도 7.1%에 불과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청년층의 고용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14년 약 1조 3,600억 원에서 2018년 약 3조 1,000억 원으로 4년 사이에 약 2.3배나 증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중복성 논란도 동시에 확대

<연령별 고용률>



자료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정규직 실질 월임금액>



자료 : 고용노동부(각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Ⅱ.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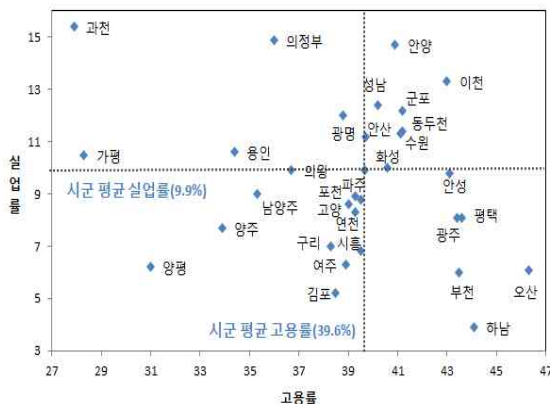
경기도 청년 고용상황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간 차이가 큼

□ 경기남부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경기북부는 경제활동참가가 부진

-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청년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아 청년고용이 양호한 지역은 하남, 오산, 부천, 평택, 광주, 안성 등 모두 경기남부지역에 속함
 - 반면, 청년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아 청년고용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은 과천, 의정부, 가평, 용인, 광명으로 나타남
-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곳은 수원, 성남, 안산, 화성, 안양, 군포, 동두천, 이천 등으로 경기남부의 제조업이 발전한 지역이 다수를 이룸
 -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지만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
-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동두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남
 -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경기도 시군별 청년고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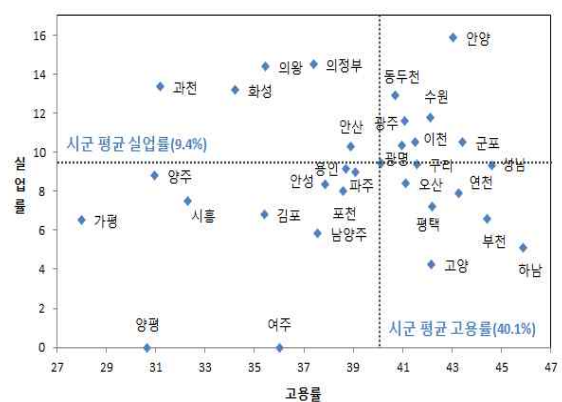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시군별 여성청년고용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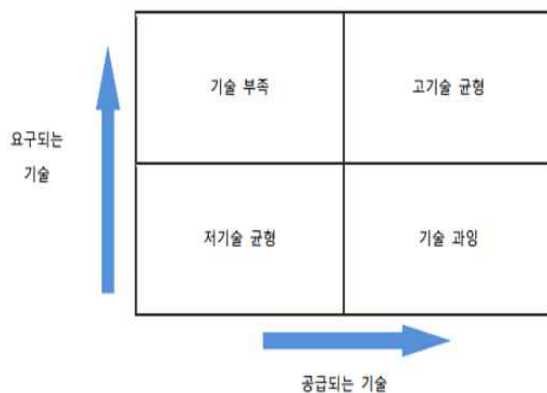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청년 고용상황은 '저기술 함정'에 의해 악화될 우려

□ 경기도는 '저숙련 균형' 하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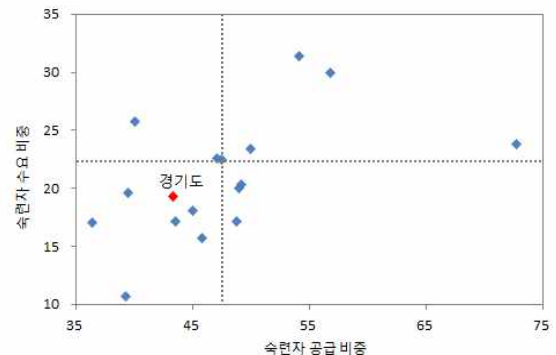
- 경기도는 숙련자 수요 비중과 숙련자 공급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모두 낮은 '저기술 균형' 상태로 나타나 '저기술 함정'에 빠질 가능성
 - 저기술 함정 지역은 고기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데 투자할 인센티브가 적은 지역으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숙련 청년들의 지역 외 유출로 인해 고용률 향상의 기대가 어려움
 -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숙련자 수요 비중은 19.3%이고 숙련자 공급 비중은 43.3%이며, 전국은 각각 22.5%, 47.5%

<숙련공급·수요에 따른 분류>



<전국 시도별 숙련공급·수요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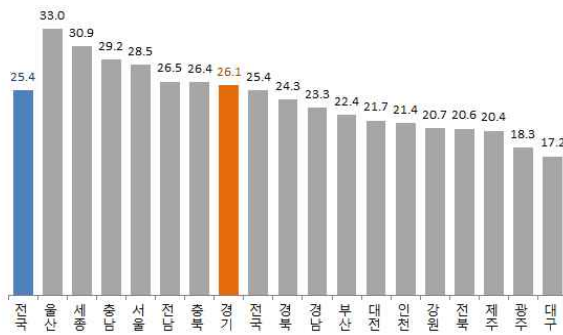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저기술 함정은 경기도 내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낮음
 -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 이상, 주당 15~49시간 근무, 상용직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자리로 정의
 -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26.1%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에 위치하고 서울시의 28.5%에 비해 낮은 수준

- 경기도에서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 미만인 곳은 8개 지역이며, 이중에서 5개 지역이 경기북부에 속함

<전국 시도별 괜찮은 일자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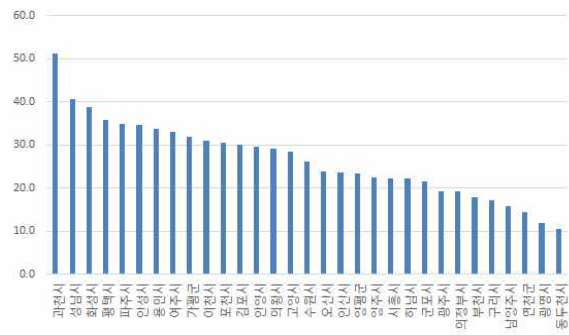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시군별 괜찮은 일자리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 경기도는 고학력 및 구조적 미스매치 비중이 높아 단기간 내 해소 어려움

- 경기도 내 괜찮은 일자의 부족은 고학력자의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미스매치 해소를 어렵게 할 가능성
 - 구조적 미스매치(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에 의한 실업)에 의한 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단기간에 조정을 통한 미스매치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괜찮은 일자리 부족은 지역 내 생산성 높은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경기도 학력별 구직-구인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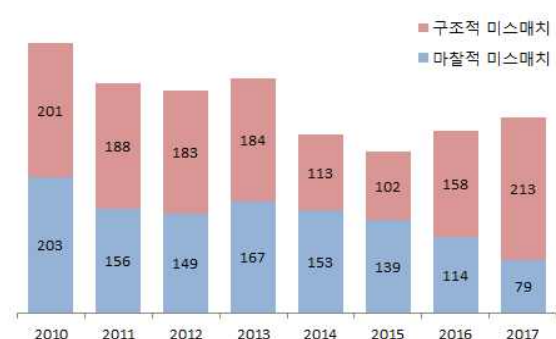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정보원(2017). 구인구직통계.

<경기도 미스매치 추이>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정보원(각연도). 구인구직통계.

경기도는 청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속권 지원은 미흡

□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으로 청년층 지원 제도를 운영

-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중앙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7년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 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총 128개 사업을 운영
 - 경기도 내 시·군에서 청년 대상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16개 시이며¹⁾, 이들 중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명칭	제정일	청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015.08.13	15~29세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2016.04.08	15~29세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2016.06.17	19~39세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2016.07.07	15~34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경기도는 청년의 숙련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미진하고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 선호도도 낮은 편임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 내 첨단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 대상 전문·숙련 훈련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사업이 대부분
 - 공공부문 인턴 사업과 같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단기간에 그쳐 민간부문 취업으로의 연계가 미약하고, 창업지원은 해당 분야의 일 경험 등이 고려되지 않아 공급자적 시각에서 창업자금이나 인프라 지원에 그치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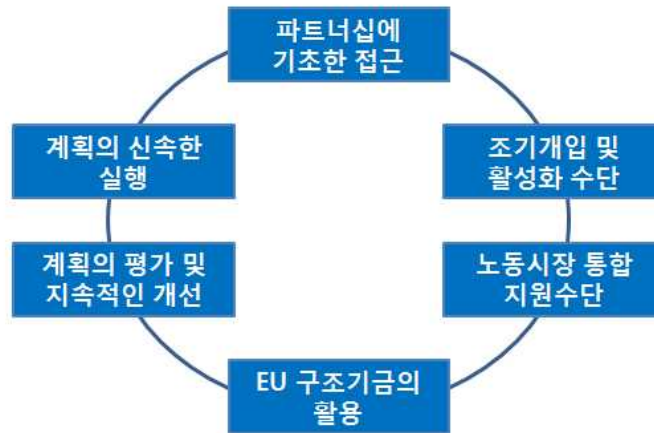
1) 시흥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Ⅲ. 청년보장제 경기도 도입방안

유럽은 청년 실업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를 도입

-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 청년보장제는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기간을 최소화할 최우선 목표로 함
 - 청년보장제의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 주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
 -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유럽연합(EU)은 2013년 청년보장제를 회원국이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청년보장 이행계획'을 유럽연합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개념화
 - EU는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하고 운영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재정을 지원
 - 유럽의 청년고용보장제는 6대 실행 중심축에 기반을 두고 운영
 - 6대 실행 중심축 : ① 조기개입 및 활성화, ② 신속한 이행, ③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파트너십), ④ 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 청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노동시장 통합), ⑤ 유럽 기금의 적극적 활용, ⑥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EU 청년보장제의 6대 실행축>



자료 : OECD(2014).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OECD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 청년보장제는 시민권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청년의 즉각적인 구직활동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근본적 차이를 보임(ILO, 2015)

- 청년보장제의 기본 취지는 국가가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고용 및 교육·훈련의 기회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있음
- 청년보장은 학교 졸업 혹은 실업 직후부터 4개월 이내에 취업 장애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구분되는 특징

□ 청년보장제는 청년 실업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

○ 지역 단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PES) 기관, 학교, 훈련기관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PES 기관이 졸업 이전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지역 내 훈련 및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 파트너십에서 지역 청년조직과 사회조직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PES 기관과 파트너들은 지역 내에서 실업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찾아내어 공동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
- 청년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PES와 직업훈련인 것으로 인식됨
 - PES는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그 효과가 단기성이라는 한계를 지님
 - 직업훈련은 단기적 효과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효과가 가장 크다는 장점을 지님
 -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은 PES와 직업훈련의 효과적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 청년보장제에서는 전통적인 도제시스템을 현대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 도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일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ILO, 2015)
 - 청년들의 일 경험과 숙련을 위하여 직장 내 장기현장실습제도(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벨기에는 최장 12개월 장기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은 최소한 훈련기간 만큼 참여 청년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OECD, 2014)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지원형 청년보장제를 도입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보장 및 안정된 삶의 기반 제공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
- 한국에서 청년고용의 전반적인 여건은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력공급 중심의 유럽형 청년보장제의 직접적인 적용은 한계

- 한국은 낮은 사회보장제도, 이중적 노동시장(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등 유럽과는 다른 특성을 지님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내 이동성(비정규직→정규직, 중소기업→대기업)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시기의 청년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직업탐색 어려움이 더욱 가중
- 청년층의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제공, 청년층의 구직단계별 및 특성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애 보장 등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청년정책을 지향할 필요
- 청년들이 학교 재학 시부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현장실습제도와 같은 선제적 개입 전략이 필요
-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구직 장애물을 신속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지역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창업, 알선, 일경험, 직업훈련 등) 필요하며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필요
- 경기도 청년보장제는 보편적 지원정책의 토대 위에 일자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각기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한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경기도 청년보장제 프레임워크(예시)>



IV. 향후 정책 방향

청년기본소득 · 중소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청년주거 · 활동공간을 확대

□ 청년층의 능력개발 · 직업탐색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 근로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연금제도 도입

- 학교 졸업 직후 구직활동 혹은 직업훈련 중인 모든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실업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구직자 혹은 청년실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현금성 지원과 통합하여 운영
 -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운영 중인 실업부조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신규 실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안전망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이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추가 연금납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임금수준이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소득 · 소비 제약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무원 수준의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자산형성 압박감과 미래소득 불확실성의 제거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로 유인이 증대

□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및 청년층의 취업준비 · 여가활동을 위한 지역청년공간 설립

- 교통환승센터 인근과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교통환승센터 인근 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일부 신혼부부에게 선별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보다는 거주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안정을 지원
- 청년들이 자존감 회복, 취업준비, 창업준비, 동아리활동, 스터디, 세미나, 휴식 등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청년활동공간을 설립하여 운영
- 청년구직자를 위한 구인정보 검색, 취업교육, 모의면접 서비스 제공 및 창업 희망자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등 운영
-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청년공간 설립에 활용

<청년층 보편적 지원정책과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보편적 지원정책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제안·검토사항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대상 확대 및 조정
청년국민연금 가입 지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
청년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셰어하우스 공급 등	교통접근성 고려
지역청년공간 설립	경기청년공간 설치	시군별 특화 추진
중소기업연금제도 도입	-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통합적 지역고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

□ 통합된 청년 지원정책 하에서 실업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 단일한 정책프레임 하에 기존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되, 실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 유럽 청년보장제는 니트(NEET)족과 저소득 청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은 청년 위험군이 저소득 청년, 고졸 니트, 비정규직 청년, 기혼청년여성 등 다양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

- 지역 내 학교, 훈련기관, PES 기관, 시민조직, 기업 간 다중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업위험에 놓인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그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주거, 복지, 문화, 교통 등)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지원
- 경기도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 특화정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
 - 경기도 시·군별 청년고용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디자인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시행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
 - 경기도 청년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단위의 다양한 고용보장 및 단계별 숙련향상(취업전 직업훈련, 기업 견습제도, 청년재직훈련) 프로그램 도입
 - 청년 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상담을 통해 구직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정교화하고 청년 통합 고용서비스 센터를 운영

- 구인기업과 구직자 상호간 적합도를 1차 검증한 후 소개함으로써 실제적인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칭 성공률 제고에 기여
 -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1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지원과 구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구직 포기 사례를 최소화
 - 지역 고용서비스기관 기관과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 내에서 실업 위험이 높은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 재직자 및 실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청년층을 포괄하는 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청년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립

- 경기도와 시·군, 대학교·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지역기업단체 등이 협력하여 비경제활동 청년층과 대학교·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한 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직업훈련 정보 등을 제공
- 주거, 금융문제 등 다차원적인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연계하여 일자리와 생활고민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유희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창업동아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
 - 판교·광교테크노벨리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청년창업공간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테크노벨리(고양, 양주, 구리-남양주) 건립 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공간을 확충
 - 중장년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과 세대 융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도심 빈집, 농촌지역 폐교 등 유희공간을 청년창업, 청년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 전통시장 현대화,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사업 등을 청년창업공간의 조성 및 연계하여 청년창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도심의 높은 임대료로 밀려난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공연, 전시 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폐교, 폐가 등 지역유희자산을 청년문화단지로 조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마을사랑방 사업>

- 빈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청년창업가, 사회적경제기업, 저소득층에게 제공
- 수원시 산하 지속가능도시재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은 빈 매입임대주택을 수리하여 ‘마을 사랑방’으로 전환한 뒤 청년창업가, 사회적경제기업,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함
 - 청년창업가·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여 공과금(전기·가스요금 등)만 부담하면 임대료 걱정 없이 창업·사업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주거 공간, 물품보관소로 활용²⁾함

○분야별 신청기준

분야별	신청 기준
청년활동가	· 수원시 거주·활동 만18~39세미만 청년 · 청년활동가 증빙서류 (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개)
청년창업 활동가	· 수원시 거주·활동 만18~39세미만 청년 · 청년창업가 및 예비청년창업가 (창업계획서 제출)
사회적경제 활동가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사무 및 물류, 창고 등 공간에 어려움이 있는 수원시 관내 사회적경제 관련 업체 (1기업 1곳 신청 제한)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는 입주제한 대상임

○마을사랑방 현황 : 4개구 9개동 중 23세대

2017년 12월 7일 기준

구분	합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파장동	천천동	송죽동	조원동	서둔동	인계동	지동	매탄동	영통동
긴급임시주거 물품보관소	6	1	1	1	1	1	-	1	-	-
청년창업가	11	1	-	-	-	-	3	1	5	1
사회적경제기업	6	3	-	-	1	-	-	-	-	2
총 공급세대	23	5	1	1	5	1	3	2	5	3



자료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내부자료(2017).
“수원시 ‘마을 사랑방’ 개소식…청년창업가에 무상 제공”, 연합뉴스(2017.7.27).
“인천시,창업 생태계 활성화·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 한국열관리시험회뉴스(2017.7.5).

2) 긴급주거 공간은 재해 피해자, 강제퇴거자, 개인파산자 등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단기간(3개월 이내) 거주하거나 물품을 맡길 수 있는 곳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고용보장 정책 시행

□ 청년층 경제활동참여의 촉진을 위해 청년모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청년들이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취업동기와 직업의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청년모임 플랫폼을 구축
 -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활동단체들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활동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구직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청년 NEET족의 자기존중감을 강화하고 취업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청년공간'을 통해 운영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는 청년고용, 직업 연구 및 정책 개발, 청년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3년 4월 청년일자리 허브를 설립함. 서울시 '청년허브'는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고 일자리정보, 멘토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간(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 청년정책기반 조성(청년정책플랫폼, 청년강연플랫폼), 청년단체 지원, 청년 역량강화 교육(청년학교), 혁신사례 발굴(청년혁신일자리 사업, 서울잡스), 청년허브 희망 캠프 등이 운영 중임. 이들 사업은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창의적 사회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자료 : 청년허브 홈페이지(<http://www.youthhub.kr/>); 김정훈(2015)에서 재인용.

□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 구매력을 제공하는 참여소득제도를 도입

-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층 소득보장과 지역사회의 필요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킨 방안 모색
 - 참여소득은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청년실업자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
 - 청년기본소득과 유사하게 참여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 참여소득을 타임뱅크(Time Bank) 혹은 지역화폐와 결합하여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³⁾
 -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타임크레딧)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다자간 교환제도
 -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시간을 기숙사비, 학원수강비, 대중교통비,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 청년층의 자발적인 타임뱅크 참여는 청년들의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향상에 기여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과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일자리 지원정책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제안·검토사항
경제활동참여 촉진	-	• 청년 자존감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매칭 정교화	-	• 관청은 일자리 인증제 도입 • 구인-구직 1차 검증제 시행
직업훈련 실효성 제고	• '장기현장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 '미래일자리' 노동자재교육	• 통합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 고용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청년창업 활성화	• 스타트업 공간 조성 • 기술창업 연계 플랫폼 구축	• 유희공간의 청년창업공간 전환
단기실업자 일자리 보장	-	• 참여소득제도 도입

3) 김정훈·이다겸(201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이슈&진단 No. 310,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주요 청년 일자리정책(2017년 기준)】

청년 일자리정책	주요 내용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목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현금을 지원 · 대상: 만18-34세의 도내 1년 이상 거주 저소득 청년 (미취업 청년 1,200여명) · 내용: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통해 사후 지급 (최대 300만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 목적: 대학생 전공 관련 기업체 실습경험 제공, 기업은 우수인재 사전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 · 대상: 경기도내 대학 (3대학 96명) · 내용: 하계방학 중 대학기업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교육훈련비의 일부 지원										
경기일자리카페 지원사업	· 목적: 청년의 친화력이 높은 민간 커피전문점을 일자리카페로 활용하여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대상: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주부, 그 밖의 취업희망자 · 내용: 일자리카페 방문자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사후관리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목적: 경기북부 지역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 마련 · 대상: 경기북부 소재 대학 재학, 졸업자 또는 거주자로 만 19세~39세 청년 (30여명) · 내용: 경기북부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경기북부 청년 문화창업 지원 사업 원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운영	· 목적: 새로운 청년문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운영 · 대상: 도내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43여명) · 내용: 청년 및 청년단체 프로젝트 공간지원, 교육,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 목적: 도내 산업체에 고급 첨단 기술·기능인력 공급 및 경기도 일자리창출 기여 ·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60여명) · 내용: 교육훈련비 전액도비 지원(교재, 실습비, 자격검정료 포함), 졸업생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 목적: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대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육성 · 대상: 경기도내 대학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전공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내용: 대학·학생, 대학·중소기업(단체) 간 협약을 통한 전공과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취업 지원										
고교 취업활성화 지원사업	· 목적: 취업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청년실업 사전예방,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대상: 경기도소재 특성화고 재학생 (300여명) · 내용: 직무 · 취업역량강화교육 및 취업컨설팅 실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경기청년뉴딜플러스)	· 목적: 직무중심의 채용문화를 선도를 통한 스펙쌓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 대상: 도내 취업 희망 청년구직자 (300여명) · 내용: NCS기반 직무중심 취업 교육 및 잡매칭 지원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 목적: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정보와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 대상: 경기북부 소재 환경전공 대학생 및 특성화고교생 (4개교) · 내용: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미래직장 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특강, 취업컨설팅 등) 운영 지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통해 현장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 대상: 전문가 과정 특성화 과정, 재직자 과정 · 내용: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재직자 과정 운영, 빅데이터 특성화 과정 운영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일자리 취약계층 상호 간 미스매칭 해소 · 대상: 만19세 ~ 만34세의 청년, 대학생, 외국인유학생, 다문화인 (150명) · 내용: 무역실무, 마케팅, 외국어 등 무역전문교육 후 기업 인턴, 취업알선 및 창업연계 지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 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인턴사업을 추진 · 대상: 만34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770여명) · 내용: 생활임금지원, 취업특강 및 취업컨설팅										
일하는 청년통장	· 목적: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영 (자산형성 지원) · 대상: 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10,500여명) · 내용: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경기문화창조허브 및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 목적: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쏠주기 창업지원 추진 · 대상: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 · 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 <table><tr><td>동부(판교)</td><td>남부(광교)</td><td>북부(의정부)</td><td>서부(시흥)</td><td>랩</td></tr><tr><td>문화콘텐츠 창작 및 창업 지원</td><td>VR/AR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창업지원</td><td>제조업+디자인+ 콘텐츠 융합</td><td>제조업 기반 융·복합 창업 지원</td><td>지역 인프라 활용, 콘텐츠 창작자 지원</td></tr></table>	동부(판교)	남부(광교)	북부(의정부)	서부(시흥)	랩	문화콘텐츠 창작 및 창업 지원	VR/AR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창업지원	제조업+디자인+ 콘텐츠 융합	제조업 기반 융·복합 창업 지원	지역 인프라 활용, 콘텐츠 창작자 지원
동부(판교)	남부(광교)	북부(의정부)	서부(시흥)	랩							
문화콘텐츠 창작 및 창업 지원	VR/AR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창업지원	제조업+디자인+ 콘텐츠 융합	제조업 기반 융·복합 창업 지원	지역 인프라 활용, 콘텐츠 창작자 지원							
창업프로젝트 추진	· 목적: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 대상: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210여명) · 내용: 시제품제작비, 기술·경영컨설팅, BI 입주비용, 창업교육, 특허등록비용, 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창업베이스캠프 운영지원	· 목적: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과 창업교육 및 교류·협업 및 네트워크 등 지원 ·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1,200여명) · 내용: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창업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 목적: 전문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대상: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민간 엑셀러레이터 (10여개팀) · 내용: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 아이템 검증·보완·보육, 투자 유치 등 지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 목적: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원 · 대상: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로서 도내 대학(원)생 또는 거주 대학(원)생 (50개팀) · 내용: 공간 및 장비, 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 사업화지원금,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프로그램 가이드북』, 고용노동부.